

싱가포르의 4대 총리 취임과 로렌스 웡 정부의 정국 운영 방향

정재완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안정빈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bahn@kiep.go.kr, 044-414-1245)



//////

차 례

1. 싱가포르의 총리 선출 과정과 4대 총리 취임
2. 로렌스 웡 정부의 정국 운영 전망
3. 로렌스 웡 정부의 주요 과제

//////

주요 내용

- ▶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 기존 관료 그룹에 의한 신세대 관료 선발·등용·육성, △ 동료 관료 그룹 간의 합의, △ 총리의 결정을 통해 관료 그룹의 세대교체를 단행하거나 차기 총리를 선출하고 있으며, 총리 내정자의 경우 철저한 검증기간을 거침.
 -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총리와 장관(상징성이 강한 대통령은 제외)은 △ 중국계 출신, △ 영어 교육 이수, △ 영어권 국가 유학 및 학위 취득 등의 공통점을 보유했으며, 4대 총리로 취임한 로렌스 웡 역시 마찬가지임.
 - 1960년대와 197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제4세대로의 세대교체는 제10대 총선(2011년)과 제11대 총선(2015년)에서 여당 인민행동당(PAP)의 득표율 하락, 리셴룽 총리의 건강 이상 우려와 중도 사임 약속 등으로 촉발되었으며, 2018년에는 후임 총리로 헝스위킷 당시 재무부장관이 내정된 바 있음.
 - 헝스위킷 당시 총리 내정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총리 교체 지연, 2020년 총선에서의 사실상 패배, 카리스마 부족 등의 이유로 2021년 자진 사퇴함에 따라 로렌스 웡이 새로운 총리 선출 프로세스를 거쳐 4대 총리로 확정됨.
 - 웡 총리는 리셴룽 전 총리의 개인수석비서로 능력,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동의장으로서의 성과, 1970년대생의 선두 주자, '포스트 리(Post Lee)' 체제의 적임자 등의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 '포스트 리(Post Lee)' 세대의 첫 총리로 취임한 로렌스 웡은 대체적으로 리셴룽 전 총리의 정책기조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2024년 예산안 중심의 경제 운영, △ 'Singapore Economy 2030' 비전 중심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 △ 시민참여형 정치를 도모하는 가운데 주요 이슈 해결, △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가계 및 개인 생계 지원, 비즈니스 및 투자환경 개선, 금융 및 핵심 산업 육성, 장년층 중심의 근로자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는 Forward Singapore를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보장 강화와 시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임.
- ▶ 로렌스 웡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는 △ 급등하는 소비자물가와 생활비 안정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 G2 전략경쟁과 대(對)중국 디리시킹 등 급변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대응, △ 지속가능성 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포스트 리' 체제 구축, 인민행동당(PAP) 재건, 차세대 그룹 양성 등이 있음.
 - 특히 △ 1959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져온 '리관유-리셴룽' 체제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국가체제 구축, △ 2025년 총선에서 PAP 승리 획득, △ 제5세대 그룹 육성 등은 싱가포르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임.

1. 싱가포르의 총리 선출 과정과 4대 총리 취임

- 2024년 5월 15일부로 로렌스 왕(Lawrence Wong, 1972년생)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이 리셴룽(Lee Hsien Loong, 1952년생) 총리에 이어 4대 총리로 취임함.
- 싱가포르에서는 리관유(Lee Kuan Yew, 1923~2015)가 초대 총리로 1959년 6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고촉통(Goh Chok Tong, 1941년생)이 2대 총리로 1990년 11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그리고 리셴룽이 3대 총리로 2004년 8월부터 재임했음(표 1 참고).
- o 리셴룽은 관례에 따라 선임장관(Senior Minister) 자리로 이동함.

표 1. 싱가포르의 역대 총리

구분	성명	소속 정당	재임 기간
초대	리관유(Lee Kuan Yew)	인민행동당(PAP)	1959. 6. 3. ~ 1990. 11. 28.*
2대	고촉통(Goh Chok Tong)	"	1990. 11. 28. ~ 2004. 8. 12.
3대	리셴룽(Lee Hsien Loong)	"	2004. 8. 12. ~ 2024. 5. 15.
4대	로렌스 왕(Lawrence Wong)	"	2024. 5. 15. ~

주: * 1959년 6월 3일부터 1965년 8월 9일까지는 자치주 총리 역임.
자료: 외교부(2019), 『싱가포르 개황』, p. 24 수정 및 보완.

- 싱가포르는 독특한 차세대 고위관료 그룹 양성 및 총리 선출 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로렌스 왕 총리의 취임은 제4세대 리더십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것뿐 아니라 5세대 고위관료 그룹 양성과 ‘포스트 리(Post Lee)’ 체제 구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4대 총리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는데, 2018년 11월 4대 총리로 내정된 헝스위킷(Heng Swee Keat, 1961년생) 당시 부총리 겸 재무부장관이 2021년 4월 사퇴함에 따라 새로운 총리 선출 과정을 거쳐 로렌스 왕 재무부장관이 2022년 4월 차기 총리로 내정됨.

가. 역대 및 4대 총리의 특징

- 싱가포르 정부가 전통적으로 엘리트주의와 능력주의(meritocracy)를 추구해오며 따라 역대 총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각료는 △ 중국계 출신, △ 영어 교육 이수, △ 영어권 국가 유학 및 학위 취득, △ 반(反) 공산주의 철학 신봉 등의 공통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짐.¹⁾
- 이에 더해 총리와 장관은 대부분 정부장학금 수혜로 ‘Scholar’라는 호칭을 받거나 정부계 기업(government-linked company, 국영기업) 근무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상당기간의 검증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짐.

1) 中川豪(2024), 「シンガポールの都市政府: エリートイズムと人材登用に関する一考察」, 『都市とガバナンス』, 第41号, p. 162, 日本都市センター.

- 다만 국가 통합의 상징적인 자리인 대통령의 경우 주로 소수민족 출신에게 후보 자리를 우선 배려하는 전통과 기준을 가지고 있음.
- o 유솅 빈 이삭(Yusof bin Ishak) 초대 대통령부터 타르만 산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9대 대통령까지를 살펴보면 중국계 3명을 제외하면 6명 전부 말레이계와 인도계 등 소수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4대 총리에 내정되었다가 사퇴한 헝스위킷이나 4대 총리로 최종 선출된 로렌스 워 역시 역대 총리와 같은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헝스위킷은 유학, 경찰청 근무, 리관유 초대 총리의 개인수석비서(Principal Private Secretary) 등을 거친 후 2011년 총선을 거쳐 정치계에 입문했으며, 이후에도 교육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을 역임했고, 4대 총리로 결정된 후에는 부총리와 여당인 인민행동당(PAP)의 사무부총장 등을 겸직하면서 검증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짐.
 - o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육부 관료, 통상산업부 사무차관, 통화감독청(MAS) 청장 등도 역임함.
- 로렌스 워 역시 정부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온 후 리셴룽 총리의 개인수석비서를 거쳐 2011년 총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국가발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재무부장관을 거쳐 2022년 4월 4대 총리로 결정되었고, 이후 부총리와 MAS 청장 등을 겸직하면서 검증을 거침.
 - o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학사, 미시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귀국 후에는 통상산업부, 재무부, 보건부, 에너지관리국 등에서 근무함.

나. 차세대 고위관료 그룹 양성 및 2~3대 총리 선출 과정

- 싱가포르는 전통적으로 △ 기존 각료 그룹에 의한 신세대 각료 선발·등용·육성, △ 동료 그룹간의 합의 형성, △ 총리의 결정 등을 통해 주요 고위관료를 양성하고 차기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²⁾ 여기에 더해 선발된 총리 내정자의 경우 철저한 검증기간을 갖는다는 특징도 있음.
- 이러한 전통은 싱가포르가 1965년 독립 이후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국가전략과, 리관유를 비롯한 1세대(1920~30년대생)에서 고축통을 필두로 한 2세대(1940년대생 주축) 및 리셴룽으로 대표되는 3세대(1950년대생 주축)로 세대교체를 거치면서 확립된 것으로 보임.
 - o 초대 총리 리관유의 친구이자 여당 PAP의 창당 멤버인 고켄스위(Goh Keng Swee)가 작성한 「고켄스위 리포트(Goh Report)」는 싱가포르 교육제도의 쇄신과 우수한 관료 육성의 기반이 된 것으로 알려짐.
- 또한 1954년 창당 이후 정부와 공동운명체를 형성한 PAP의 간부가 관료를 겸직하거나 싱가포르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GLC의 간부 또는 군(軍) 고위장교로 경력을 쌓고 검증 받은 후 총선을 통해 고위관료로 성장하는 패턴도 일반화됨.

2) 久未亮一(2019),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後継首相の決定プロセスと今後の展望」, p. 9, アジア経済研究所.

- 2대 총리 고촉통은 국영기업 넵튠해운공사(Neptune Orient Lines)에서 근무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후 PAP의 공천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고, 3대 총리 리셴룽도 군에서의 능력(국방참모차장, 포병대 사령관, 육군 준장 등)을 배경으로 1984년 PAP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정치계에 입문함.
- 특히 차기 총리의 경우 내정 받은 직후부터 PAP 사무부총장과 행정부 부총리 등을 겸직하면서 일정 기간 당과 동료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취임함.
- 고촉통은 차기 총리로 내정 받은 이후 제1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역임하면서 5년 동안 실력과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으며, 그에 앞선 2세대 각료들은 1984년 11월 리관유 초대 총리가 지목한 토니 탄(Tony Tan, 1940년생, 7대 대통령 역임) 당시 재무부장관 대신 ‘고촉통을 차기 총리로 지지한다’고 밝혔고 리관유 역시 이를 받아들임.³⁾
- 일찍부터 차기 총리로 낙점 받은 리셴룽은 경제위원회 위원장, 통상부장관 겸 국방부장관, 부총리 겸 통상부장관, MAS 청장, 재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면서 능력과 공감대를 인정받은 것은 물론 동료들의 신뢰 역시 얻은 것으로 평가 받음.⁴⁾
- 동료들의 합의 추대는 ‘리더십과 팀워크를 중시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실제 싱가포르에서의 2세대 고위관료 그룹 인선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고, 3세대 고위관료 그룹 역시 고촉통이 2대 총리로 취임한 199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리관유 초대 총리의 경우 퇴임 후에도 계속해서 내각에 머무르며 영향력을 행사함.

- 2세대 그룹의 등장 배경은 격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었고, 3세대 그룹의 등장 배경은 리관유의 후계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같은 세대 그룹 간의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이었음.
- 2세대로의 세대교체는 1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3세대로의 세대교체는 2세대가 은퇴를 시작한 1990년대부터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임.
- 리관유는 자신이 구축한 체제의 지속 여부를 감독하거나 후계 구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임장관(Senior Minister)과 고문장관(Minister Mentor)직을 신설하여 역임함.
- 리관유는 총리를 그만둔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선임장관과 고문장관을 차례로 역임하였으나, 2대 총리 고촉통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선임장관만 역임함.

다. 4세대 고위관료 그룹 육성 및 4대 총리 선출

■ 3세대에서 4세대로의 교체는 리셴룽 총리 취임 직후가 아니라 2011년 5월 실시된 제10대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를 당한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임.

- 4세대로 세대교체의 주요 배경으로는 △ 리셴룽 총리의 건강 이상 우려와 총리직 사임 약속, △ 전통에 따른 교체시기 도래, △ 2011년 총선에서 PAP의 사실상 패배 등을 들 수 있음.

3) 久末亮一(2019),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後継首相の決定プロセスと今後の展望」, p. 3, アジア経済研究所.

4) 리셴룽 역시 2004년 왕강생(Wong Kan Seng, 1946년생) 당시 내무부장관을 주축으로 한 3세대 각료로부터 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久末亮一(2019),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後継首相の決定プロセスと今後の展望」, pp. 3~4, アジア経済研究所.

- 리셴룽 총리는 1992년 악성 림프종양을 치료했고, 2015년에는 전립선암을 발견하여 수술한 경험이 있으며, 2010년대 이후에는 ‘70세 이후 총리 사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음.
- 특히 제10대 총선에서 집권 여당 PAP는 전체 의석 87석 중 81석을 얻어 승리했지만, 득표율은 사상 최저치인 60.1%(제9대, 66.6%)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6석(제9대, 2석)을 획득함.⁵⁾
- 총선 직후 실시된 제3차 개각부터 제1 및 2세대가 완전히 은퇴한 가운데, 헝스위킷, S. 이스라완(S. Iswaran, 1962년생), 찬춘싱(Chan Chun Sing, 1969년생), 비비안 발라크리쉬난(Vivian Balakrishnan, 1961년생), 루이턱유(Lui Tuck Yew, 1961년생) 등 1960년대에 태어난 4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함.
- 2012년의 부분 개각 이후에는 그레이스 후(Grace Fu, 1964년생)를 비롯한 1960년대생이 대거 등용된 가운데, 1970년대생인 로렌스 워가 문화공동체청소년부 장관으로 입각함.

■ 11대 총선(2015년 9월) 결과를 배경으로 집권 여당 PAP는 4차 개각과 함께 헝스위킷을 중심으로 한 4세대로의 세대교체를 확정하였으나, 헝스위킷은 2021년 차기 총리 자리를 사퇴함.

- PAP는 11대 총선에서 전체 의석 89개 중 83석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득표율도 10대 총선보다 10%p가량 높게 차지함.⁶⁾
- 헝스위킷은 총선 승리 직후인 4차 개각을 통해 재무부장관으로 증용된 데 이어 2018년에는 당시 4세대 그룹으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4대 총리로 내정됨.
 - 2018년 당시 차기 총리후보로는 헝스위킷 재무부장관, 찬춘싱 총리실 장관, 옹예쿵(Ong Ye Kung, 1969년생) 교육부장관 등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짐.
 - 헝스위킷은 2018년 5월 개각에서 재무부장관으로 취임해 능력을 인정받은 데 이어 PAP 내에서도 중앙 집행위원을 거쳐 당 서열 2위 자리인 부사무총장(Deputy Secretary-General)에 등극하면서 4대 총리로 확정됨.⁷⁾
- 2019년 5월부터 부총리를 겸하며 검증기간을 거치던 헝스위킷은 2021년 4월 4대 총리 자리를 사퇴한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배경으로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정권 교체 지연, △ 제12대 총선(2020년 7월)에서의 사실상 패배 및 불신임, △ 카리스마 부재 및 PAP 개혁 능력 부족, △ 건강상 이유 등을 들 수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수습을 위한 리셴룽 총리의 집권 지속의 필요성으로 인해 정권교체가 지연되고 있었고, 헝스위킷의 당시 나이가 4세대 그룹 중에서는 가장 많아 총리 취임 후 일정기간 집권하기가 어렵다는 평판이 제기되었음.
 - PAP가 제12대 총선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득표율(제10대의 60.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61.2%)을 기록, 야당의 사상 최대 의석(10석) 확보, 헝스위킷 선거구에서의 PAP 득표율 사상 최저 수준(53.4%) 획득 등으로 사실상 패배했고 총리 내정자 역시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평가받았는데,⁸⁾ 이것이 사퇴

5) National Library Board(2011), “2011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https://www.nlb.gov.sg/main/article-detail?cmsuuiid=f853af7-5476-439c-83b2-7ff9469d6037>(검색일: 2024. 5. 13.).

6) 외교부(2019), 『싱가포르 개황』, p. 32.

7) 헝스위킷은 1997년부터 당시 선임장관이었던 리관유의 개인수석비서로 발탁되어 리관유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이 4대 총리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있음. 久末亮-(2019), 「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後継首相の決定プロセスと今後の展望」, p. 9, アジア経済研究所.

8) 新井聖子(2021. 5. 24.), 「シンガポールの次期首相候補が辞退した本当の理由」, 世界経済評論 Impact, No. 2160,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160.html>(검색일: 2024. 5. 11.).

의 실질적인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임.

- 헝스위킷은 싱가포르 국민으로부터 대체로 '카리스마가 없을 뿐만 아니라 PAP를 개혁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큰 인기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⁹⁾
- 2016년 각료회의 중간에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건강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 정부는 헝스위킷 사퇴 이후 2022년 다시 총리 선출 프로세스를 가동했고, 4세대 그룹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1970년대생 로렌스 워를 4대 총리로 내정함.

- 로렌스 워가 4대 총리로 선출된 배경으로는 △ 리셴룽 총리의 개인수석비서(2005~08)로서 능력 인정, △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공동의장으로서의 성과, △ 4세대 그룹의 선두주자로서 두각 등을 들 수 있음.
 - 이 외의 배경으로 △ 리셴룽이 추진하는 탈세습의 적임자, △ 군 출신이 아닌 점(리셴룽 총리를 비롯한 3세대 그룹 중 군 출신이 많이 등용됨에 따라 강해진 군의 영향력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는 인사 필요), △ 상당 기간 차기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1970년대생이라는 점, △ 유연성과 균형감 보유 등도 거론되고 있음.¹⁰⁾
- 3세대 원로이자 수송부장관을 역임한 콰분완(Khaw Boon Wan)이 총리와 선임장관의 요청을 받아 4세대 그룹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로렌스 워가 전체 18명 중 1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¹¹⁾
 - 로렌스 워가 동료로부터 만장일치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은 전형적인 관료 출신으로 정치적 구심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4대 총리로 내정된 후 로렌스 워는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검증시간을 가짐.
 - 헝스위킷 사퇴 직후 로렌스 워는 재무부부장관에서 재무부장으로 승진하였고, 2023년에는 부총리로 승진하면서 재무부장관을 겸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PAP 부사무총장, MAS 청장,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공사(GIC)의 투자전략위원회 의장 등에 취임함.
- 리셴룽 전 총리는 2023년 11월 개최한 당대회를 통해 '2024년 11월의 PAP 창당 70주년 직전에 정권을 이양할 것'임을 발표함.¹²⁾

■ 다만 3세대로의 세대교체는 국부(國父) 리관유의 영향력이 살아있었고 후계구도가 명확했던 점에 비해, 4세대로의 세대교체는 독립(1965년 8월) 전후 세대가 중심인 데다 'Post Lee' 세대 구축이라는 점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짐.

9) 위의 자료.

10) 久末亮一(2023), 「シンガポール政治の変容と将来：緩やかに進む民主化への道」, 『アジアの「民主主義」』, p. 10, 総合研究開発機構(NIRA).

11) 위의 자료.

12) 西濱徹(2024. 4. 17.), 「シンガポールはいよいよ政権移譲、ウォン次期政権の行方は」, Asia Trends, p. 1, 第一生命経済研究所.

2. 로렌스 워그 정부의 정국 운영 전망

- 2024년 5월 15일 출범한 로렌스 워그 정부는 리셴룽 전 총리의 정책기조를 전반적으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글로벌 불확실성과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가계 및 개인 생계 지원] 최근의 잇따른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지정학적·지경학적 변수로 인한 타격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싱가포르는 로렌스 워그가 부총리로 재임하면서 추진한 가계 및 개인 생계 지원정책 기조를 당분간 지속하거나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바우처, 가계소득별 지원책, 취약계층 독립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음.
-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 개선] 외자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추가로 미래 성장동력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으로 보임.
 - 로렌스 워그가 재무부장관으로서 주도한 2024년 예산안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환급 지원책과 국가생산성기금(NPF: National Productivity Fund)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2024년 예산안은 다국적기업과 자국 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금융 및 핵심 산업 육성] 금융강국의 경쟁력을 유지함은 물론 R&D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 중추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보임.
 - 로렌스 워그는 R&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 250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인 'RIE 2025(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 2025)'에 30억 싱가포르달러를 추가 투입할 것을 약속함.
 - 로렌스 워그는 인공지능(AI)을 핵심투자 분야로 지목해 5년간 10억 싱가포르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다국적기업 아마존은 2024년 5월 싱가포르의 AI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약 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밝히며 싱가포르 정부 전략에 힘을 실어줌.¹³⁾
- [근로자 지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전문성 소멸 및 실직 등에 대비하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견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재취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중기적으로는 2022년 발표한 'Singapore Economy 2030' 비전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할 것으로 전망됨.¹⁴⁾
 - [무역 2030] 수출을 2020년의 8,050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30년까지 1조 싱가포르달러로 확대하고, 총무역액도 같은 기간 1조 싱가포르달러에서 2조 싱가포르달러로 확대하고자 함.

13) CNBC(2024. 5. 7.), "Amazon's AWS to double down on Singapore with additional \$9 billion cloud investment," <https://www.cnbc.com/2024/05/07/amazons-aws-to-invest-nearly-9-billion-in-singapore.html>(검색일: 2024. 5. 8.).

14)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22), "Singapore economy 2030: Seizing Opportunities, Energising Enterprises," 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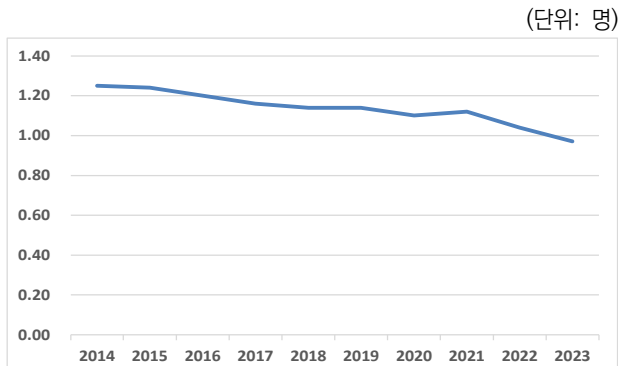
- [기업 2030]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세대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역량 개발, 국제화, 디지털화, 혁신 등 4대 핵심 분야를 지원할 방침임.
- [제조업 2030]
 - 203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를 50% 향상시키고, 싱가포르가 첨단제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인재의 허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싱가포르 제조업체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자 함.
 - 제조업 2030 커리어 이니셔티브(M2030 Careers Initiative)를 통해 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할 계획임.
- [서비스 2030] 기업으로 하여금 성장잠재력이 큰 지속가능성 및 디지털 분야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임.

■ 로렌스 워그 정부가 정치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점진적으로 권위주의적 방식을 탈피하거나 시민참여형 정치를 도모하면서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해결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정부 발족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이전 실시 예정인 총선 전까지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로렌스 워그는 부총리 시절인 2022년 6월 ‘포워드 싱가포르(Forward Singapore)’라는 사회안전망 보장 이니셔티브를 기획했는데, 이는 약 16개월 간 시민과 4세대 정치인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수립한 것으로 알려짐.
 - Forward Singapore는 △ 가계 지원책, △ 직업군별 지원책, △ 평생교육 강조, △ 장년층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취약계층 독립 지원책, △ 지속가능성 성장을 위한 식량 및 물 안보, △ 통합된 시민의식으로 다문화 향유 및 싱가포르 아이덴티티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히 Forward Singapore는 고도 성장 시대를 겪으면서 위계와 상명하복의 가치를 존중하는 고령층과 반대로, 경제적 취약함에 노출된 청년층의 변화된 시각을 반영해 사회적 결속력을 다지고자 추진하는 것임.
 - 청년 세대들의 능력주의와 경쟁 우선주의 문화에 대한 공감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성공의 기준도 다양하고 포용적으로 제시함.
- 시대적 화두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성장동력 약화, 특히 인재육성을 지렛대로 활용해온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한계로 연결되는 만큼, 로렌스 워그 정부 역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3년에는 사상 최초로 1.0 이하인 0.97을 기록했으며, 인구의 고령화 역시 빠르게 진전되어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aged society,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0%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 이상)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음 (그림 1과 2 참고).
 - 고령화가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최근 의료보험과 국민건강지원 관련 정부 지출이 공교육 예산을 능가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임.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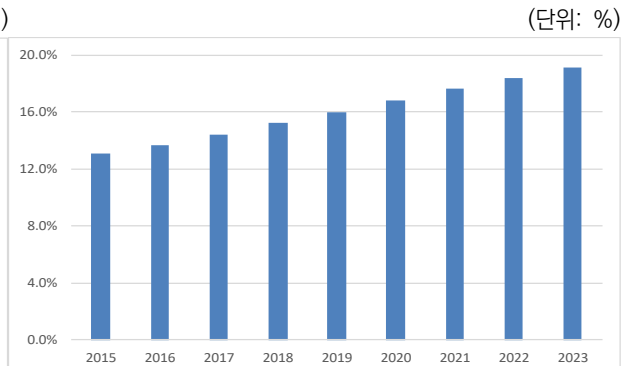
15) The Economist(2024. 5. 8.), “Singapore has achieved astounding economic success,” <https://www.economist.com/asia/2024/05/08/singapore-has-achieved-astounding-economic-success>(검색일:2024. 5. 8.).

그림 1. 싱가포르의 출산율 추이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검색일: 2024. 5. 14.).

그림 2.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검색일: 2024. 5. 14.).

- 로렌스 워그 총리는 PAP의 장기 집권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득표율과 절대 의석수 확보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청년층의 정치 참여 확대, △ 합리적 이미지를 활용한 소통과 경청의 정치 등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로렌스 워그는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의 실무 경험을 갖춘 관료로, 특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청년 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하는 행보와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를 뒷받침함.

■ 무엇보다 로렌스 워그 정부는 싱가포르의 금융, 무역, 첨단기술, 인재 등 분야 지역 허브 기능을 유지 및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 더불어, 특히 202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글로벌 최저한세(GMT: Global Minimum Tax) 도입에 따른 투자매력도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는 2025년 1월 1일부터 GMT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싱가포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 중 GMT 대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이 약 1,800개라고 밝힘.¹⁶⁾
 - 싱가포르는 GMT 최저세율 15%와 실효세율과의 차액분에 대해 국내톱업세(Domestic Top-up Tax)를 부과할 예정임.
- 싱가포르는 우선 GMT 도입에 따른 투자 위축 방지와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EIS: Enterprise Innovation Scheme)를 새롭게 도입하고, 노동자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생산성기금(NPF)에 추가로 40억 싱가포르달러를 출연하기로 함.
 - EIS는 △ 자국 내 R&D 활동, △ 특허, 상표 등 지식소유권(IP)의 등기, △ IP취득, 라이선싱, △ 정부가 인정하는 과정에서의 기술연수, △ 고등전문학교(폴리테크닉) 및 기술전문학교(ITE)와의 공동연구의 5개 분야에 2024~28년까지 세금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임.¹⁷⁾
- 또한 투자처로서 싱가포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인 투자세액공제(Refundable Investment Credit)를 도입해 기업의 설비투자, 인건비, 위탁비 등 적격비용의 50%를 최대 10년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계획임.¹⁸⁾

16) 本田智津絵(2023. 2. 16.), 「2025年から多国籍企業へのグローバルミニマム課税導入へ」, ジェトロの海外ニュース, <https://www.jetro.go.jp/biznews/2023/02/92ac35280b76eebc.html>(검색일: 2024.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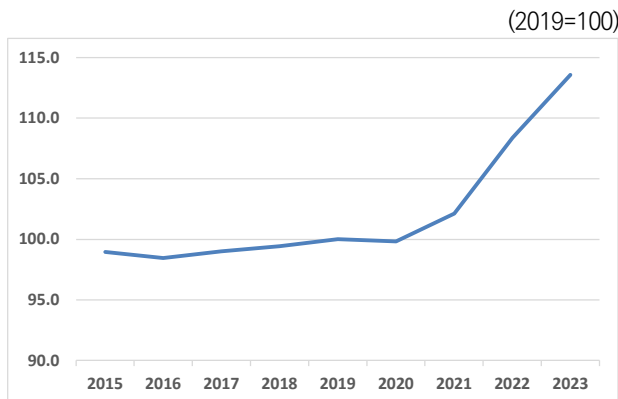
17) 위의 자료.

3. 로렌스 워그 정부의 주요 과제

■ 첫째로 로렌스 워그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하는 소비자물가와 생활비를 안정시키고,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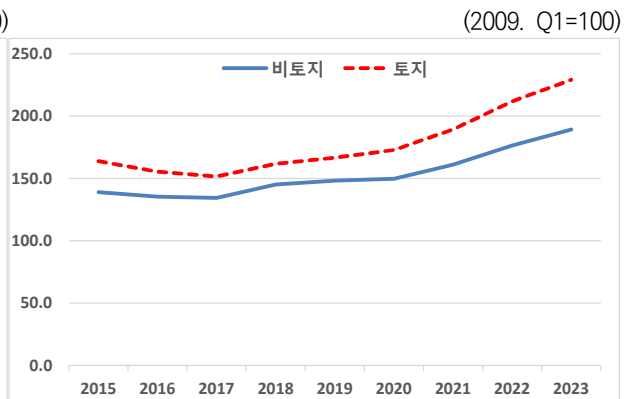
- 싱가포르의 소비자물가지수가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들고 있음(그림 3 참고).
- o 최근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12명의 경제학자 중 9명이 워그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인플레이션 억제를 선택함.¹⁹⁾

그림 3. 싱가포르의 소비자물가 지수 추이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검색일: 2024. 5. 14.).

그림 4. 싱가포르의 부동산지표 추이



자료: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검색일: 2024. 5. 14.).

- 양등하는 소비자물가에 더해 부동산 가격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등하고 있어 시민과 외국인 주재원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음(그림 4 참고).
 - o 도시재개발청(Urban Redevelopment Authority)이 내놓은 부동산지표에 따르면, 비토지부동산과 토지부동산 모두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최소 35% 급등함.²⁰⁾
 - o 특히 외국인 주재원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고층주택(콘도미니엄 등) 임대지수는 2022년 4/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29.8% 상승한 이후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지만, 2023년 4/4분기에도 6.9% 상승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함.
- 싱가포르는 2023년 기준 출산율이 사상 최저 수준인 1.0명 이하로 떨어진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9.1%를 기록해 UN이 정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는 핵심 성장동력 확보와 관련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음.

18) 本田智津絵(2024. 2. 22.), 「グローバルミニマム課税に対応へ、投資誘致で新たな税額控除措置」, ジェトロの海外ニュース, <https://www.jetro.go.jp/biznews/2024/02/e109e07116e2764f.html>(검색일: 2024. 5. 10.).

19) Cynthia Li(2024. 4. 17.), "Singapore's New PM Needs to Tackle Cost of Living, Analysts Say," <https://envoy-staging.arcus.cm.bloomberg.com/news/articles/2024-04-17/singapore-s-new-pm-needs-to-make-fighting-inflation-top-priority?srnd=undefined>(검색일: 2024. 5. 11.).

20) CEIC(검색일: 2024. 5. 10.); 싱가포르 도시개발청(검색일: 2024. 5. 9.).

- 최근 싱가포르 정책연구소(Institute of Policy Studies)의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21~34세 성인 10명 중 7명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²¹⁾

■ 둘째, 지속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G2의 전략경쟁과 대(對)중국 디리스크(de-risking) 등은 대외무역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하는 싱가포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새로운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함.
 - 싱가포르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상품무역의 경우 1.79(2023년), 상품과 서비스를 합한 전체 무역의 경우 3.03으로 매우 높은 만큼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임.²²⁾
- 특히 2024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과 함께 최근 중국의 저성장에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임.
 - 싱가포르의 상품무역(2023년 기준)에서 중국(본토)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3%(전체 1위)와 12.6%(2위)이며, 서비스무역(2022년 기준)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각각 17.7%(전체 1위)와 7.9%(3위)를 차지하고 있음.²³⁾
 - 대(對)싱가포르 외국인투자(2022년 누적 기준)에서도 미국은 5,740억 싱가포르달러로 전체의 21.9%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624억 싱가포르달러로 2.4%(11위)를 차지함.²⁴⁾
 -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할 경우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특히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수록 글로벌 무역의 파편화로 세계 무역량이 줄어들거나 물류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싱가포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²⁵⁾
 - 앞서 소개한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웡 정부의 두 번째 중요 과제로 '미국 및 중국과의 우호관계 구축과 무역 활성화'가 선택됨.²⁶⁾
- FDI가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2025년 시행예정인 GMT로 인한 FDI 위축 혹은 이탈을 방지할 추가적인 정책이나 인센티브의 발굴도 중요한 과제임.

■ 셋째, 2000년대 이후 싱가포르의 GDP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미중 통상마찰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기저효과로 9.9% 성장한 2021년을 제외하고는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

21) Dylan Loh and Tsubasa Suruga(2024. 4. 23.), "Lawrence Wong, Singapore's next PM, seeks growth in 'troubled world'," <https://asia.nikkei.com/Spotlight/Asia-Insight/Lawrence-Wong-Singapore-s-next-PM-seeks-growth-in-troubled-world> (검색일: 2024. 5. 10.).

22)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24),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23*, pp. 2~3 데이터를 통해 저자 계산.

23) 싱가포르 통계청(검색일: 2024. 5. 14.) 데이터를 통해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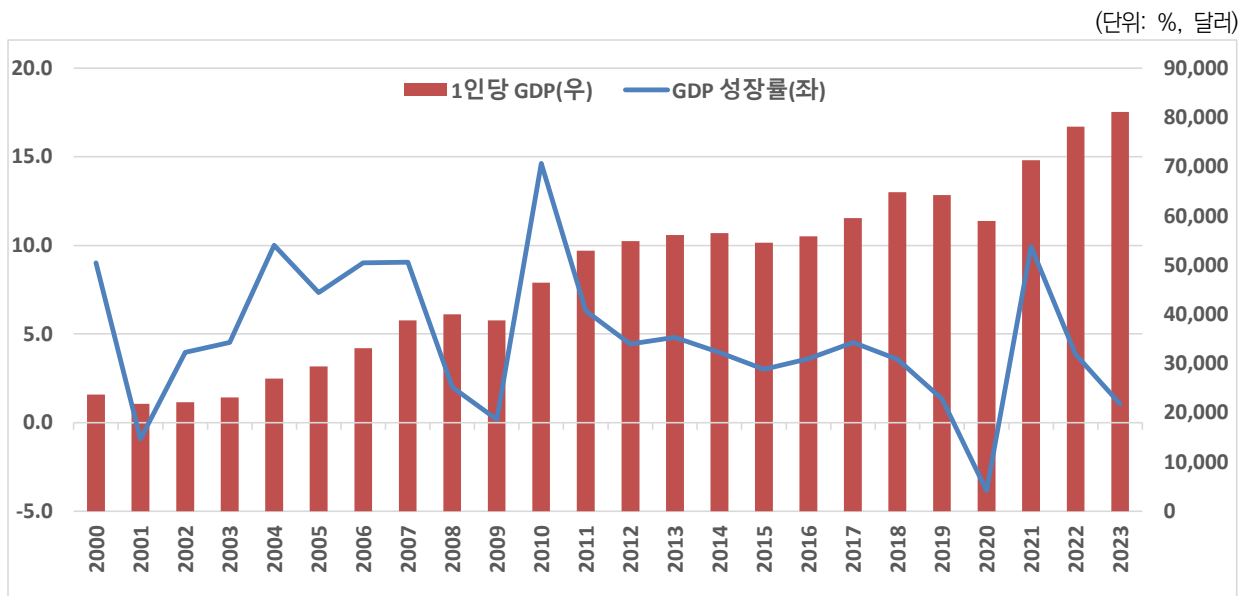
24) *Ibid.*

25) Dylan Loh and Tsubasa Suruga(2024. 4. 23.), "Lawrence Wong, Singapore's next PM, seeks growth in 'troubled world'," <https://asia.nikkei.com/Spotlight/Asia-Insight/Lawrence-Wong-Singapore-s-next-PM-seeks-growth-in-troubled-world> (검색일: 2024. 5. 10.).

26) Cynthia Li(2024. 4. 17.), "Singapore's New PM Needs to Tackle Cost of Living, Analysts Say," <https://envoy-staging.arcus.cm.lobomberg.com/news/articles/2024-04-17/singapore-s-new-pm-needs-to-make-fighting-inflation-top-priority?srnd=undefined>(검색일: 2024. 5. 11.).

- 특히 싱가포르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대(對)중국 디리스팅과 중국경제의 성장속도 저하, 기후변화 등과 자국의 저출산·고령화 급진전 등으로 전통적인 핵심 성장동력인 대외무역, FDI와 인적자원 중심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그림 5. 싱가포르의 최근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추이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검색일: 2024. 5. 14.); S&P Global(검색일: 2024. 5. 14.).

■ 마지막으로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리(Post Lee)’ 국가체제 구축, PAP 재건, 5세대 그룹 양성 등도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싱가포르는 독립 이전인 1959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져온 ‘리관유-리셴룽’ 체제와는 다른 환경과 성격의 새로운 국가체제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싱가포르는 그동안 권위주의적 통제방식과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데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정부의 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독립 이후 세대, 특히 1970년대가 주축인 로렌스 워 총리와 4세대 그룹의 핵심 과제는 ‘Post Lee’ 국가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명확해보임.
 - 게다가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그동안 강조되어온 능력주의, 경쟁, 근면성실 등의 가치들이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잃고 있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사회계층 간 이동성에 대한 비관적인 시선이 늘고 있음.
 - 무엇보다 싱가포르는 독립 직후의 낙후한 개발도상국이나 제3세계에 속한 국가가 아닌,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자 제1세계 국가 지위에 걸맞은 민주주의 및 자유주의 국가를 설립해야 하는 압박을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음.
- 4세대 그룹은 단기적으로는 2025년에 예정된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고 득표율도 낮아지는 PAP를 재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음.
 - 여당 PAP의 득표율은 제11대 총선(2015년 9월) 당시 69.9%에서 제12대 총선(2020년 7월)에서는 60.1%로 크게 낮아진 반면, 야당의 의석수는 6석에서 10석으로 늘어남.

- PAP가 최근 제12대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한 이유로는 국민 사이에서 PAP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감 확산,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정책과 결과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 등을 들 수 있음.²⁷⁾
- 독립 이후 첫 세대로 기록된 로렌스 워그 정부는 전통과 관례대로 2025년으로 예정된 총선 직후부터 6차 개각을 포함해 5세대 그룹 양성을 시작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선임장관으로 취임한 리셴룽의 역할이나 영향력, 더 나아가 리셴룽 전 총리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음. **KIEP**

27) 西濱徹(2022. 4. 15.), 「シンガポール、'ポスト・リー'はウォン財務相に決定」, Asia Trends, p. 1, 第一生命経済研究所.